

광주시, 운전면허증 반납 고령자 확대 지원

2000명 대상 10만원권 교통카드 지급... 노인교통사고 감소 효과 등 기대

광주광역시시는 고령화에 따라 급증하고 있는 노인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운전면허증 반납 어르신에 대상으로 교통카드를 지급하는 사업을 연말까지 시행한다.

광주시는 지난해 10월부터 70세 이상 어르신이 운전면허증을 자진 반납하면 1회에 한해 10만원권 교통카드를 지급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 제도는 당초 반납자 중 500명을 추첨해 교통카드를 지급했으나, 어르신 교통사고 예방과 자진 반납 활성화 등을 위해 올해 1월부터는 운전면허증을 반납하는 70세 이상 어르신 모두에게 교통카드를 주는 방식으로 전환했다.

이를 통해 지난해 10~12월 500명, 지난해 추첨 미신청자 및 올해 1~2월 신규 반납자 1425명 등 총 1925명이 운전면허

증을 반납하고 교통카드를 지급받았다.

광주시는 제도에 대한 호응이 높은 점을 감안해 올해는 예산확보 및 반납 예상 인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2000명으로 확대 지원할 계획이다.

대상은 광주시에 주민등록 주소를 둔 70세 이상 어르신으로, 직접 가까운 경찰서 민원실을 방문해 운전면허증을 반납하고 교통카드 발급 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 광주시는 신청을 접수 받은 후 익월 말까지 원하는 주소에 등기우편으로 교통카드를 지원한다.

이와 관련, 광주시는 지난해 5월 고령 운전자를 배려하는 양보운전을 유도하고자 고령운전자량 실버마크 8000매를 제작해 교통안전공단과 자치구 노인복지관, 주민자치센터 등을 통해 배부하는 등 교

통사고 예방 활동을 활발히 펼치고 있다.

또 교통사고다발구간 인근 경로당 319곳 어르신 3300명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맞춤형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폐지 줍는 어르신 150명, 노인일자리 사업 참여자 8500여명에 대해서는 안전한 보행법, 무단횡단 위험성 등 실질적인 교통사고 예방법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기도 했다.

박갑수 시 교통정책과장은 "고령화 사회에 맞춰 어르신 교통카드 지원 사업 뿐 아니라 찾아가는 경로당 교통안전 교육과 교통안전시설 보강 등 어르신들이 안전하고 편안한 광주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고령자 운전면허증 반납은 우리 모두의 안전을 위한 일인 만큼 많은 참여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전광훈 기자



이용섭 시장,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영상회의' 참석 이용섭 시장이 3일 시청 17층 재난상황실에서 정세균 국무총리가 주재하고 중앙부처와 17개 시도가 참여하는 '코로나19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영상회의'에 참석해 코로나19 확산 방지 및 관련 문제들에 대한 대책을 모색했다. /광주시제공

“저소득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합니다”

남구, 진찰 및 입원비·식대 등 본인 부담금 전액 제공

광주 남구(구청장 김병배)는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저소득층 주민에 대한 집중 치료를 위해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사업을 본격 실시한다.

올해 정부 차원에서 새롭게 추진하는 이 사업은 저소득층 정신질환자가 병원에 입원 및 퇴원을 하더라도 환자 및 부양가족의 경제적 부담으로 치료가 중단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다.

남구는 3일 “정신질환으로 의료기관에 응급 입원 또는 행정 입원한 환자 및 발병 초기 정신질환자, 외래치료 지원 대상자 가운데 의료급여 수급자 또는 전국가구

중위소득의 65% 이하에 해당하는 저소득층 정신질환자는 치료비 중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일부 부담금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정신질환 치료비와 관련해 본인 일부 부담금에 해당하는 진찰료와 입원료, 식대, 투약 및 조제료, 주사료, 마취료, 정신요법료, 검사료, 영상진단료 등이 전액 지원되는 것이다. 본인 부담금 가운데 비급여 항목인 상급 병실료와 투약 및 조제료, 처치 및 수술료, 검사료, 제증명료 등은 지원되지 않는다.

다만 상급 병실료는 불가피하게 입원할

경우 14일 범위 내에서 지원이 이뤄지며, 응급 입원에서 행정입원으로 전환될 경우에도 지원 조건에 해당할 시에만 치료비 지원이 가능하다. 정신질환 관련 치료비를 지원받으려면 환자 또는 보호자 등이 환자의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신청을 해야 하며, 환자를 치료하는 정신의료기관은 해당 기관 소재지 관할 보건소에 치료비를 청구하면 된다.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사업에 관한 궁금한 사항은 남구청 보건행정과 정신건강팀(☎ 607-4391)로 문의하면 된다.

남구 관계자는 “발병 초기에 집중적인 치료를 유도하고, 응급상황 입원 및 퇴원 후에도 저소득층 정신질환자들이 적시에 적절한 치료를 꾸준히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정관채 기자

전남도, '코로나19' 농수축산물 판촉 온라인 방송

유튜브TV 방송 드라이브스루 매장... 전남 친환경농산물 판촉

전남도는 지난 3일 전남도와 가수 김경연의 유튜브채널 ‘국민안내양 TV’가 손잡고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온라인 ‘남도 상생 농수축산물 장터’를 열었다고 밝혔다.

전남도는 이날 ‘국민안내양 TV’와 함께 학교급식 중단과 외식 수요 감소로 판로가 막힌 농어업인들을 돕기 위해 도청 광장에서 판촉 행사를 펼치며 유튜브를 통해 실시간으로 방송했다. 특히 김영록 전남도지사가 직접 출연해 전남 특산물 홍보에 나섰다, 가수 김경연이 방송을 진행했다.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농어업인들이 판로가 막혀 고통받고 있고, 도시민

들은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으로 쇼핑하기가 어려워 유튜브를 통한 판촉 행사에 나섰다”며 “이번 판촉 행사를 계기로 온라인 방송을 통한 농수산물 유통이 활발히 이뤄지고 농어업인의 소득이 늘어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국민 소리꾼 박애리 명창을 비롯 태권도 선수 출신 탤런트 이동준, 전국 장터를 섭렵한 장물뱅이 개그맨 조문식, 해비메탈 출신 트로트 가수 불러맨 남봉근이 출연했다. 또 일류 손맛을 자랑하는 최인선 셰프가 전남 식재료로 만든 맛있는 요리를 선보였다.

이날 유튜브 생방송과 소비자 주문을 연계한 전남도 온라인 쇼핑몰 ‘남도

장터’는 전남 농수축산물을 시중가격보다 10%에서 49%까지 저렴하게 판매했다. 또 도청 남악호수 F주차장에 차를 타고 쇼핑이 가능한 ‘드라이브 스루’ 매장을 동시에 운영해 큰 호응을 얻었으며,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100박스를 비롯 친환경 팔기 670박스, 친환경 부추 200박스, 반건조 우렁 60세트, 수국 880송이 등 판매실적을 거뒀다.

한편 가수 김경연의 유튜브채널 ‘국민안내양 TV’는 공익을 추구하는 시민 방송이며,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고 있는 농가들의 고통 분담을 위해 지역 특산물 홍보에 주력하고 있다.

/오권철 기자

동구, '코로나19 민생경제 활력 종합대책' 추진

25개 분야... 추경편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총력

광주 동구(정장 임택)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민의 생활 안정과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코로나19 민생경제 활력 종합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구는 코로나19 여파로 경제활동과 소비심리 위축으로 지역경제 전반에 어려움이 커지자 민생경제 활력대책에 대한 각 부서의 제안을 받아 종합적이고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실효성 있는 안들을 도출해냈다.

그 결과 가장 시급한 지역경제 부양을

위해 취약계층 생활안정,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활성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지원 등 지역사회 전반적인 분야에 대한 다양한 지원 대책을 마련했다.

세부적으로 ▲소상공인 긴급 경영안정 지원 ▲사회적기업 경영피해 지원 ▲상점가과 공중·식품위생업소 위생용품 지원 ▲공유재산 대부료 감면 ▲상점가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및 사용료 감면 ▲착한 임대인 재산세 감면 ▲지방소득세 납부기한 연장 ▲위탁기관 인건비 및 시설운영비 지원 등 지역경제 활력증진을 위한 25개

분야가 반영됐다.

아울러 코로나19로 인한 재정수요 증가에 따른 정부와 광주시 정책을 연계한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 민생안정에 총력을 다 할 방침이다.

임택 동구청장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소비위축으로 지역경제 전반이 어려운 상황”이라면서 “모든 가용자원을 총동원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민생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박도일 기자

광전매일신문
TEL. (062) 525-9775
FAX. (062) 528-4566

북구, 지역문화진흥원 주관 생활문화공동체만들기 공모 선정

오는 11월까지 동호회 활동 지원, 문화예술 프로그램 운영, 마을 축제 등 다양한 활동 펼쳐

광주시 북구(구청장 문인)는 지역문화진흥원이 주관한 '2020 생활문화공동체만들기' 공모에 선정돼 국비 2천만 원을 지원받는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주민들을 일상생활 속 문화예술의 주체자로 참여시켜 생활문화 동호회 활성화 및 공동체 가치를 회복하고자 마련됐다.

이에 북구는 사업 수행기관인 북구문화

원과 함께 오는 11월까지 더하기, 나누기, 누리기, 다지기 등 4가지 주제로 생활문화 동호회 발굴, 문화예술 프로그램 운영, 복지시설 재능기부, 마을 축제 등 다양한 활동을 지원한다.

특히 동아리 회원들이 지역문화를 이끄는 주체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하고 동호회 자료집 발간, 생

활문화 축제 등을 통한 공동체 확산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문인 북구청장은 “이번 사업이 생활문화 동호회 간 다양한 교류와 역량강화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 생활문화 동호회가 북구 문화예술을 선도하는 문화 주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오철수 기자

우체국 예금

나를 알아주는 착한금융

소중한 자산, 잘 지켜주고 불려주고~ 금융의 기회, 누구에게나 열어주고~ 당신 결연 늘 우체국금융이 있습니다.

우체국금융

1588-1300

우체국 쇼핑

참 가까운 우체국 쇼핑

안심 쇼핑 1번지 우체국 쇼핑

지금 바로 도전하세요!

지원문의
· 자세한 사항은 가까운 우체국으로 문의

소중한 사람에게는 사랑이 가득 담긴

우체국 택배

1588-1300

우체국 보험

국가가 운영하는 우체국보험

당신을 우체국FC(보험설계사)로 모십니다.

서수원우체국 FC 이재상 대구수성우체국 FC 김동숙
정흥우체국 FC 박이연 광화문우체국 FC 신아연

지금 바로 도전하세요!

EMS

스마트 접수 서비스

EMS 스마트 접수 서비스 이용하고, **요금 5% 할인받으세요.**

우체국 준등기우편서비스

일반우편물을 수취인 주소지의 수취함 등에 배달한 경우, 발송인에게 배달결과를 카카오톡, SMS 등으로 제공하는 우편서비스입니다.